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CONTENTS

- 발표 **1**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1  
백원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표 **2** 지방대학 위기와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 15  
유한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표 **3**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전략 ..... 35  
송창용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 발표 1

###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백원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2022.03.2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백 원 영

1

## 목 차 | CONTENTS



2

## 01 서론 | 연구배경

-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출생, 사망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 전통적으로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인재 유출입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은 지역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함
-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고학력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01 서론 | 연구배경

- ▶ 청년층의 높은 지역 간 이동성은 기업과 노동력 간의 매칭을 원활하게 하고 청년층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게 함
- ▶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2021년 기준 7.8%(통계청)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
  -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은 단순히 인재 유출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노동시장의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의 변화, 기업 이전과 정부, 공공기관의 분산 등에 따라 지역 간 노동이동이 다양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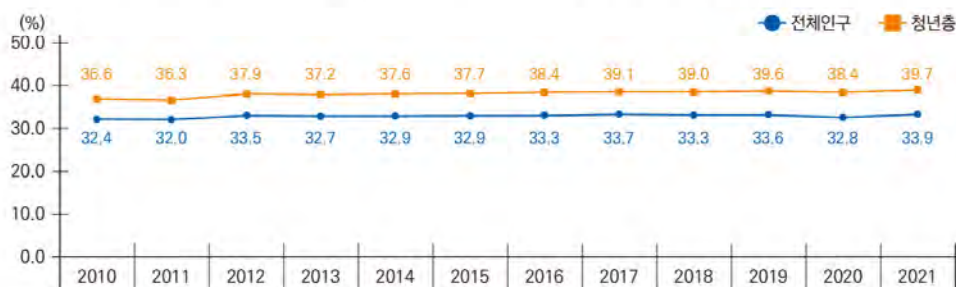


## 01 서론 | 연구목적

- ▶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1)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 2) 지역이동으로 얻는 편익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남
- ▶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서 지역 간 이동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함
- ▶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과 노동시장 진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결과 청년층 고용정책의 시사점을 도출

##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광역권별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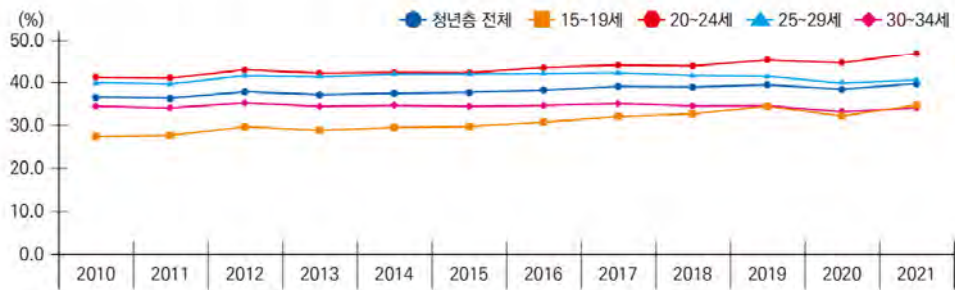
- ▶ 우리나라의 총 이동자 수와 이동률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범위인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및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광역권별 인구이동 현황

특히 20~24세 연령층의 이동성이 강화된 것은 진학 및 취업에 기인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광역권별 수도권 유입·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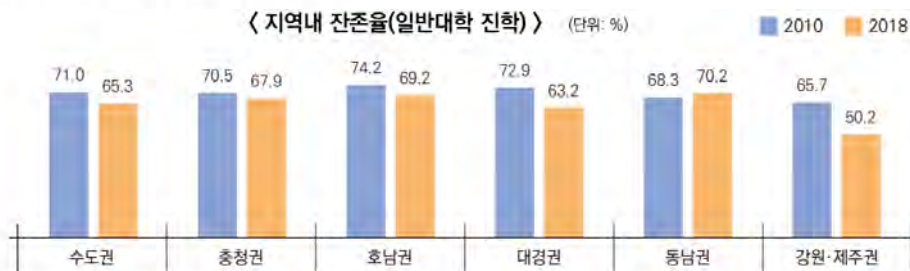
2021년 기준 동남권이 대경권과 함께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가장 심한 권역으로 나타남

수도권으로 유출(명)		수도권에서 유입(명)		수도권의 순유출(명)
충청권	146,394	충청권	146,192	202
호남권	86,622	호남권	73,511	13,111
대경권	71,925	대경권	52,027	19,898
동남권	94,879	동남권	64,244	30,635
강원권	52,063	강원권	56,978	-4,915
제주권	18,748	제주권	21,982	-3,234

자료: 통계청(2021), 「국내인구이동통계」.

## 02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 현황 | 진학을 위한 이동 현황

- ▶ 고졸인력의 대학진학을 위한 이동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동남권(70.2%), 호남권(69.2%) 순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해 지역 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0년, 2018년.

## 02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 현황 | 진학을 위한 이동 현황

- ▶ 수도권 유출률은 동남권에서는 2018년 12.8%로 2010년에 비해 낮아졌고, 대경권과 강원·제주권에서 최근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0년, 2018년.

##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취업을 위한 이동 현황

- ▶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내 잔존율은 수도권(87.8%), 동남권(70.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35.3%)이 가장 낮았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0년, 2018년.

11

##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취업을 위한 이동 현황

- ▶ 충청권(56.9%) 및 강원·제주권(55.3%) 일반대학 졸업자의 경우 수도권 지향성이 높게 나타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0년, 2018년.

12

### 03 분석 자료 | 데이터

-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 GOMS의 모집단은 매년 전년도 일반대학 졸업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자료를 활용
  - 대졸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 진학과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이동을 노동시장 성과 관점에서 실증함

### 03 분석 자료 | 지역이동 유형

구 분		고등학교 소재지	대학 졸업지역	현 직장 취업지역
역내 연결형	유형 1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유형 2	비수도권	비수도권 (고교 소재지 동일)	비수도권 (고교 소재지 동일)
회귀형	유형 3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유형 4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고교 소재지 동일)
	유형 5	비수도권	비수도권 (다른 지역)	비수도권 (고교 소재지 동일)
전류형	유형 6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졸업지역 동일)
	유형 7	비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유형 8	비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졸업지역 동일)
유출형	유형 9	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유형 10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다른 지역)
	유형 11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다른 지역)
	유형 12	비수도권	비수도권 (다른 지역)	비수도권 (다른 지역)
	유형 13	비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 03 분석 자료 | 지역이동 유형별 비중

- ▶ 수도권으로의 회귀(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나 잔류(비수도권 → 수도권 → 수도권)하기보다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성장 지역에 잔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GOMS 2018 기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8년.

### 04 분석 방법 |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현 직장의 임금과 일자리 만족도를 활용
  - 지역 간 이동이 청년층의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의 성과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 개인특성(연령, 성별, 부모 학력), 대학 특성(전공계열, 졸업 평점 평균), 직장 특성(사업체 유형, 규모, 종사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동 유형에 따라 임금 격차 및 일자리만족도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05 분석 결과 | 지역이동의 임금효과

구분	임금효과		
	유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역내 완결형	유형 2	-0.060***	0.005
	유형 3	-0.054***	0.007
	회귀형	유형 4	0.033**
전류형	유형 5	-0.005	0.012
	유형 6	-0.071***	0.013
	유형 7	0.035***	0.008
유출형	유형 8	-0.067***	0.012
	유형 9	0.054***	0.013
	유형 10	0.016	0.021
	유형 11	0.097***	0.02
	유형 12	0.023**	0.011
	유형 13	-0.011	0.007
N	44,599		

주: 1) 개인특성, 대학특성, 직장특성, 조사 연도 등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2)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지역이동 유형별 임금 격차는 고등학교 이후 현 직장까지 줄곧 수도권에 머무르는 (역내완결형) '유형 1'에 비해 고등학교 및 대학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유출형)하는 유형에 속한 경우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음

- 유형 11(비수도권-수도권-타 비수도권)의 경우 임금이 수도권 역내완결형에 비해 약 10% 높게 나타남

## 05 분석 결과 | 연도별 지역이동의 임금효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역내 완결형	유형 2	-0.066*** (0.012)	-0.069*** (0.012)	-0.061*** (0.012)	-0.048*** (0.012)	-0.055*** (0.012)
	유형 3	-0.052*** (0.016)	-0.057*** (0.015)	-0.070*** (0.016)	-0.039** (0.016)	-0.051*** (0.015)
	회귀형	유형 4	0.067** (0.039)	0.035 (0.038)	0.056 (0.036)	0.016 (0.034)
전류형	유형 5	-0.005 (0.025)	-0.059** (0.026)	0.006 (0.026)	0.019 (0.025)	0.016 (0.028)
	유형 6	-0.062** (0.025)	-0.129*** (0.028)	-0.021 (0.031)	-0.054* (0.031)	-0.080*** (0.028)
	유형 7	0.038** (0.017)	0.039** (0.018)	0.02 (0.018)	0.050*** (0.018)	0.02 (0.017)
유출형	유형 8	-0.021 (0.024)	-0.067*** (0.026)	-0.076*** (0.027)	-0.042 (0.027)	-0.121*** (0.025)
	유형 9	0.115*** (0.032)	0.051 (0.031)	0.027 (0.029)	0.046 (0.029)	0.049* (0.027)
	유형 10	0.058 (0.046)	-0.002 (0.045)	-0.012 (0.049)	0.016 (0.045)	0.023 (0.046)
유출형	유형 11	0.131*** (0.044)	0.122** (0.051)	0.078* (0.043)	0.090* (0.047)	0.083** (0.042)
	유형 12	0.019 (0.025)	0.018 (0.025)	0.022 (0.024)	0.036 (0.024)	0.011 (0.024)
	유형 13	0.008 (0.016)	-0.012 (0.016)	-0.031* (0.017)	-0.008 (0.016)	-0.012 (0.016)
N	8,236	8,642	9,060	9,296	9,368	

주: 1) 개인특성, 대학특성, 직장특성, 조사 연도 등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2)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산업구조의 변화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과 같은 정책, 급격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는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을 유발함

- 2018년에 유형 11(비수도권-수도권-타 비수도권)의 임금효과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유의함

- 비수도권 역내 완결형(유형 2)과 수도권 회귀형(유형 3)의 경우 수도권 역내 완결형(유형 1)에 비해 임금이 낮게 나타남

→ 권역 단위의 지역 간 이동이 실질적인 임금 변화를 수반하고 있고, 지역 간 물가나 삶의 질을 넘어서 대졸 청년층의 이동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함

## 05 분석 결과 | 지역이동의 분위별 임금효과

구분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역내 완결형	유형 2	0.088** (0.037)	-0.078*** (0.007)	-0.089*** (0.004)	-0.090*** (0.006)	-0.078*** (0.008)
	유형 3	0.231*** (0.049)	-0.021** (0.009)	-0.077*** (0.006)	-0.136*** (0.008)	-0.127*** (0.010)
	유형 4	0.045 (0.111)	-0.012 (0.019)	-0.002 (0.013)	0.070*** (0.018)	-0.087*** (0.023)
회귀형	유형 5	0.294*** (0.081)	-0.038*** (0.014)	-0.054*** (0.010)	-0.069*** (0.013)	-0.032* (0.017)
	유형 6	-0.112 (0.088)	-0.114*** (0.015)	-0.063*** (0.011)	-0.093*** (0.014)	-0.055*** (0.019)
	유형 7	-0.081 (0.055)	0.006 (0.010)	0.023*** (0.007)	0.068*** (0.009)	0.092*** (0.011)
전류형	유형 8	-0.067 (0.080)	-0.103*** (0.014)	-0.073*** (0.010)	-0.074*** (0.013)	-0.054*** (0.017)
	유형 9	0.114 (0.092)	-0.005 (0.016)	0.029*** (0.011)	0.112*** (0.015)	0.151*** (0.019)
	유형 10	0.257* (0.145)	0.006 (0.025)	0.009 (0.017)	-0.043* (0.023)	-0.077** (0.031)
유출형	유형 11	0.030 (0.141)	0.009 (0.025)	0.047*** (0.017)	0.159*** (0.023)	0.258*** (0.030)
	유형 12	0.259*** (0.076)	0.034*** (0.013)	0.000 (0.009)	-0.007 (0.012)	-0.031* (0.016)
	유형 13	0.220*** (0.050)	0.016* (0.009)	-0.029*** (0.006)	-0.081*** (0.008)	-0.086*** (0.011)
N	44,599					

주: 1) 개인특성, 대학특성, 직성특성, 조사 연도 등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2)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 수도권 잔류형(유형 7)과 유출형(유형 9, 유형 11)의 경우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
- ▶ 비수도권 회귀형(유형 4)의 경우 75분위 이상 고임금 분위에서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
  -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에서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은 후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다시 자신의 지역으로 회귀

## 05 분석 결과 | 지역이동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구분	직무만족도		
	추정계수	표준오차	
역내 완결형	유형 2	-0.026	0.025
	유형 3	-0.077**	0.033
	유형 4	-0.055	0.075
회귀형	유형 5	-0.007	0.055
	유형 6	0.035	0.060
	유형 7	0.074**	0.037
전류형	유형 8	0.015	0.054
	유형 9	-0.094	0.063
	유형 10	-0.070	0.100
유출형	유형 11	0.020	0.095
	유형 12	0.030	0.051
	유형 13	-0.089***	0.034
N	44,599		

주: 1) 개인특성, 대학특성, 직성특성, 조사 연도 등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2)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 수도권 잔류형(유형 7)의 직무만족도는 수도권 역내완결형(유형1)보다 높게 나타남
  - 전공 분야, 임금 외에도 수도권에 정착하였을 때의 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비수도권 역내완결형(유형2)의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은 지역의 사회적 위세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 비수도권에서 대학 졸업 후 수도권으로 회귀(유형 3)한 경우 임금과 직무 만족도에는 부정적 영향



## 06 결론

- ▶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구분을 5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현 직장 취업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이동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함
- ▶ 일반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대학 졸업 이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취업한 경우 오히려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남
  - 개인의 특성과 함께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71

## 06 결론

- ▶ 지역이동에 있어 성장지라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 소재지로 회귀하는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나 가족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할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라 할지라도 '기대임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지역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그리고 양질의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 지역에서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고급인력의 지역 이주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의 정착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임
  - 지역 규모, 특화산업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기업 또는 산업과 연계된 정책이 필요

72

감사합니다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발표 2

## 지방대학 위기와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유한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지역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2022.03.29)

## 지방대학 위기와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유한구(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목차

- 01 | 문제제기
- 02 | 연구내용 및 결과
- 03 | 정책방안
- 04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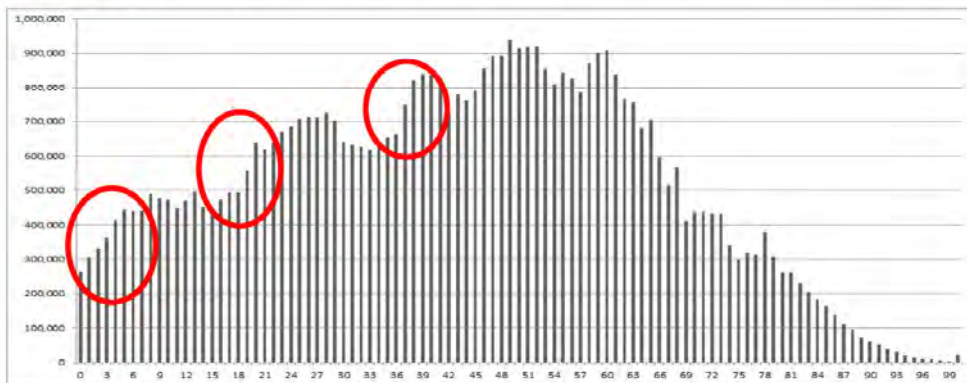
# 1 문제제기

## 01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어 지방 대학의 위기가 심화됨 (2차 인구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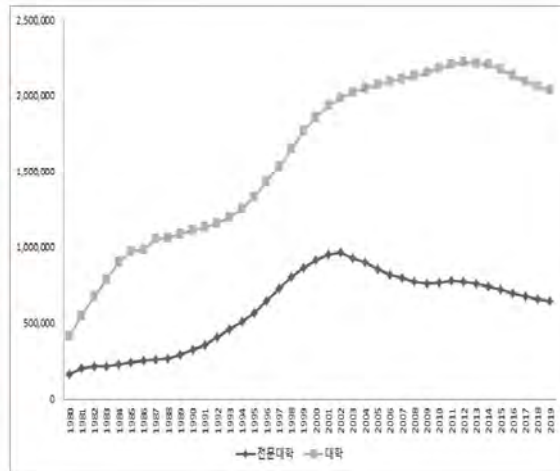
- 2020년 20~24세 인구에 비해 15~20세 인구는 약 72만명 감소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이 대학 입학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만6세에서 0세의 학령인구도 약 20만명 정도 추가적으로 감소함(3차 인구절벽)



## 01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체성 혼란

-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의 시행 이후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여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의 학생 규모 감소가 더 두드러짐.
- 학령인구의 감소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해 더 일찍 학생수가 감소가 나타남.
-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4년제 대학의 성격은 취업을 중시하는 직업 중심 대학의 성격을 띠면서 “직업교육화” 현상이 나타남.
- 정부의 취업을 중심의 대학 평가는 이러한 현상을 더 가속화시킴.



5

## 01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혼재

- 일부 4년제 대학은 취업이 유리한 직업교육 성격의 학과를 유치하여 학생수 유치와 취업을 재고에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함.
- 학생수 감소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전문대학은 “학생을 대학에 묶어두려”는 전략을 취하여 학사학위 과정의 운영을 확대함.
- 고등교육 보편화와 직업교육화 현상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짐.

보건의계열 관련 학과 설치 현황(2015)

구분	물리 치료	방사 선	인경 광학	임상 병리	작업 치료	치위 생	치기 공	계
전문 대학	39	23	30	26	32	55	15	74
대학	46	21	13	25	32	28	4	63

전문대학 학사학위 과정 운영 현황(2019)

학년도	(신입제 경력있는)전공심화과정			(신입제 경력없는)전공심화과정		
	모집대학	학과수	모집정원	모집대학	학과수	모집정원
2019	27	35	947	100	726	15,745

6

## 01 문재인 정부의 대학지원 정책의 변화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은 대학의 교육역량강화(특성화)와 취업역량강화(산학협력)를 핵심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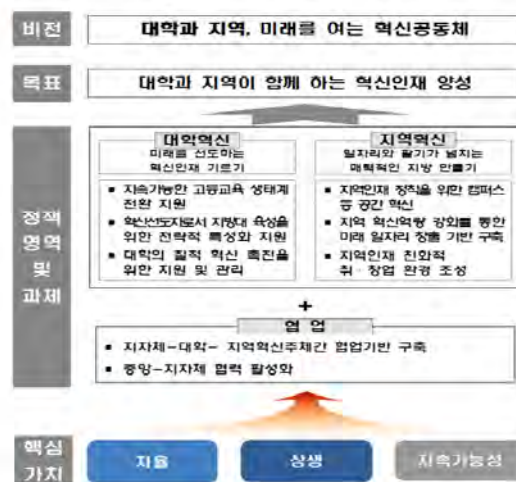
- 이전 정부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분화되어 있던 대학사업을 통합하여 대학혁신지원(교육역량강화) 산학협력(취업역량강화), 연구지원(연구역량강화)로 통합함.
- 현 정부 대학정책의 특징은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역 대학의 육성임.
- 특성화, 산학협력 등의 기존 사업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 국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방향은 미흡함.



## 0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대학과 지역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위기 대응

-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2015).
  - ✓ 지역인재 양성(입학지원)과 활용(취업지원)을 통한 인재육성 방안
  - ✓ 지방대학 육성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방정부 참여
- 1차 기본계획의 성과로 지역 대학에 대한 자원과 공공부문의 지역인재 채용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대학 지원은 미흡함.
- 2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1차 기본계획과 같으나, 추진체계에서 지방정부와 대학, 지역혁신 주체의 협업을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함.





## 01 연구 문제

지역의 대학교육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 가운데 이 연구의 핵심적 관심사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방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 1) “고등학교=>대학=>취업 과정에서 지역이동 요인의 파악(로지스틱 회귀분석)
- 2) 대학의 특성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회귀분석)
- 3) 지역협업위원회 운영의 중간성과 분석(사례분석)
- 4) 부산광역시 대학협력단 운영성과(사례분석)



9

# 2 연구내용 및 결과

## 02 대졸자의 고교-대학-취업 이동 분석(1)

- 분석대상 :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일자리에 취업한 적이 있는 34세 이하의 2018학년도 대졸자(교육대 제외)
- 분석자료 : 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대학알리미 및 행정통계
- 분석방법 : 고교=>대학=>취업의 지역이동에 대한 5개 로지스틱 회귀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

구분	(1)	(2)	(3)	(4)	(5)
분석대상	비수도권 고교 출신	비수도권 고교 출신	비수도권고-비수도권대졸자(역내)	비수도권고-수도권 대졸자	수도권고-비수도권 대졸자
종속변수	0: 비수도권대 진학 1: 수도권대 진학	0: 비수도권 취업(회귀) 1: 수도권 취업	0: 비수도권 취업(역내) 1: 수도권 취업	0: 비수도권 취업(회귀) 1: 수도권 취업	0: 비수도권 취업(역내) 1: 수도권 취업(회귀)

11

## 02 대졸자의 고교-대학-취업 이동 분석(2)

- 비수도권 고교=>수도권대학=>지역회귀 비율 : 일반대 15.1%, 전문대 12.4%
- 비수도권 고교=>지역대학=>지역취업 비율 : 일반대 71.7%, 전문대 80.2%
- 비수도권 고교=>지역대학=>수도권취업 : 일반대 18,134명, 전문대 6,013명

대학	첫 일자리	일반대학	전문대학
수도권	수도권	75.0% (16,981명)	85.7% (3,982명)
	비수도권(회귀)	15.1% (3,427명)	12.4% (577명)
	비수도권(비회귀)	9.9% (2,242명)	1.9% (90명)
비수도권(역내 진학)	수도권	20.5% (18,134명)	12.4% (6,013명)
	비수도권(역내)	71.7% (63,310명)	80.2% (38,766명)
	비수도권(역외)	7.8% (6,844명)	7.4% (3,573명)
비수도권(역외 진학)	수도권	32.4% (7,115명)	27.8% (2,097명)
	비수도권(회귀)	26.0% (5,723명)	34.0% (2,562명)
	비수도권(역내*)	35.1% (7,714명)	27.1% (2,042명)
	비수도권(역외*, 비회귀)	6.5% (1,426명)	11.1% (832명)

12

## 02 대졸자의 고교-대학-취업 이동 분석(3)

- 고교-대학 단계보다 대학-일자리 단계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 규모가 더 크고, 유보임금이나 일자리의 임금수준 등이 수도권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지역산업의 영향
- 지역에서의 인재유출은 주로 일반대학의 문제 → 지역내 일반대학(특히 지역거점대학)의 혁신 중요
- 지역인재 유출 양상은 지역별로 크게 상이함. 동남권보다 강원권의 문제가 훨씬 심각 → 산업 및 거리 문제

지역 이동 경로	전문대					일반대				
	개인	가정	학업	대학	지역	개인	가정	학업	대학	지역
비수도권고-수도권 대학	X	X	-	-	○	○	△	-	-	○
비수도권고- 수도권 취업	△	X	△	△	△	○	○	○	○	○
비수도권고- 비수도권 대-수도권 취업	△	X	X	X	△	○	○	○	○	△
비수도권고-수도권 대-수도권 취업	△	X	X	○	X	○	△	X	△	X
수도권고-비수도권 대-수도권 취업	X	△	△	△	○	○	△	X	X	○

13

## 02 대학 특성화 및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 효과(1)

- 분석대상 : 2015년~2018년 대학 학과별 취업현황(취업률 및 취업자 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한정함.
- 분석자료 : 2014년 대학특성화 알리미의 학과 특성화 및 재정지원 사업 지원 현황, 교육개발원 취업통계(2015~2018)
- 분석방법 : 학과별 특성화와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주체별 효과 회귀분석

〈 회귀분석 모형 〉

구분	(1)	(2)	(3)	(4)
종속 변수	학과별 취업률	학과별 취업률	학과별 취업자수	학과별 취업자수
설명 변수	특성화여부, 총재정 지원액, 상호작용효과	특성화여부, 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지원액, 상호작용효과	특성화여부, 총재정 지원액, 상호작용효과	특성화여부, 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지원액, 상호작용효과
통제 변수	초광역권(7개), 학과대계열(6개)		초광역권(7개), 학과대계열(6개) 학과졸업자수, 상급학교 진학률	

14

## 02 대학 특성화 및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 효과(2)

〈 특성화 참여 현황(2014) 〉

구분	학교 수			학과 수			학생 수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대학	250	50	60.0	5,867	1,630	27.8	1,822,832	633,532	34.8
전문대	184	98	53.3	2,730	773	28.3	502,516	216,577	43.1
계	434	248	57.1	8,597	2,403	28.0	2,325,348	850,109	36.6

〈 재정지원 사업 금액(2014) 〉

		중앙정부 재정 지원 사업			지방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사업 수	총 지원액(억 원)	사업당 액(억 원)	사업 수	총 지원액(억 원)	사업당 액(억 원)
대학	특성화	12,651	15,397.1	1.22	1,061	697.9	.66
	비특성화	19,367	21,817.0	1.13	2,036	1,009.3	.50
전문대학	특성화	451	1,996.4	4.43	189	103.0	.54
	비특성화	1,014	1,725.2	1.70	672	295.6	.44
소계	특성화	13,102	17,393.5	1.33	1,250	800.9	.64
	비특성화	20,381	23,542.2	1.16	2,708	1,304.9	.48

15

## 02 대학 특성화 및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 효과(3)

종속변수	설명변수	대학			전문대학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취업률 R2=.205 .267	상수	57.672	0.371		53.086	0.878	
	특성화	0.376	0.374	0.010	2.777	0.708	0.082
	중앙총액	6.392E-12	0.000	0.018	9.711E-10	0.000	0.159
	지방총액	-1.354E-09	0.000	-0.112	1.367E-09	0.000	0.047
	특성화*중앙	1.318E-11	0.000	0.016	-2.753E-10	0.000	-0.043
	특성화*지방	3.135E-10	0.000	0.019	-1.649E-09	0.000	-0.044
취업지수 R2=.947 .958	상수	-0.797	0.212		-8.056	0.764	
	특성화	0.134	0.204	0.002	1.897	0.591	0.016
	중앙총액	9.721E-13	0.000	0.001	6.469E-10	0.000	0.030
	지방총액	-7.633E-10	0.000	-0.030	1.408E-09	0.000	0.014
	특성화*중앙	-1.486E-11	0.000	-0.008	-2.444E-10	0.000	-0.011
	특성화*지방	1.234E-10	0.000	0.000	-1.001E-09	0.000	-0.008

\* 붉은색 : p < .05, 특성화\*지방: 공대계열, 중앙정부 지원액과 취업률의 관계

16

## 02 대학 특성화 및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 효과(4)

- 학과 특성화는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대학보다 전문대학에 의미가 있음.
  - ✓ 4년제 대학의 성격이 연구중심, 취업중심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그 영향이 취업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지원 사업비의 효과는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이 지방정부의 지원 사업에 비해 효과적이었음.
  - ✓ 4년제 대학은 지방정부 지원이 역상관이 나타나지만, 전문대학은 긍정적 효과를 보임.
  - ✓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효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모두 긍정적임.
- 상호작용 효과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자수의 증가에 지방정부와 특성화가 중첩되었을 때 나타남.
-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지원 취업중심 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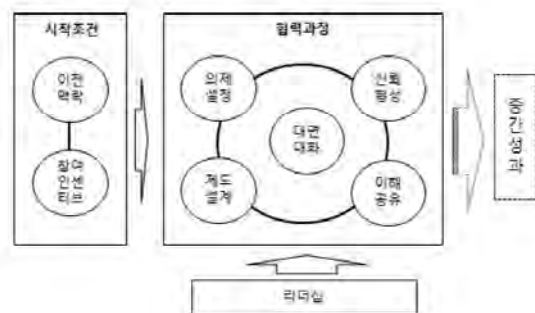
## 02 지역협업위원회 운영 사례분석 (1)

- 분석대상 :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참여
- 분석방법 :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모형 분석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선정 〉

대학	2020년		201년		비고	
	플랫폼명	지자체	대학	플랫폼명		
전남대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광주 전남		좌동	기존	
충북대	충북 지역혁신 플랫폼	충북		좌동	기존	
경상대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경남	경상대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경남, 울산	전환
			충남대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대전, 세종, 충남	신규

〈 지역협업위원회 분석틀 〉



## 02 지역협업위원회 운영 사례분석 (2)

### 지자체와 대학의 공동 리더십의 가능성 확인

- ✓ 지자체 특화산업 분야 맞춤형, 지자체 연합형 지역협업을 진행하는 사례 있음.
- ✓ 지자체 특화산업 전략과 대학 역량 결합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 복수형 지역플랫폼 사업으로 지자체 리더십 형성 한계 노정

<충북플랫폼>

구분	소속	직위(급)
공동위원장	충청북도	도지사
공동위원장	충북대학교	총장
위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위원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위원	유원대학교	총장
위원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위원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위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광주진남플랫폼>

구분	소속	직위(급)	비고
①	광주광역시	시장	기존
②	광주광역시	시장	기존
③	전라남도	도지사	기존
④	전남대학교	총장	기존
⑤	총괄운영센터장	총괄운영센터 센터장	기존
⑥	위원	광주광역시 교육감	기존
⑦	위원	전라남도 교육감	기존
⑧	위원	목포대학교 총장	기존
⑨	위원	광주 전남연구원 원장	기존
⑩	위원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기존
⑪	위원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기존
⑫	위원	한국전력 사장	추가
⑬	위원	현대삼호중공업 사장	추가
⑭	위원	에너지와 공조 사장	추가
⑮	위원	조선대학교 총장	추가
⑯	위원	순천대학교 총장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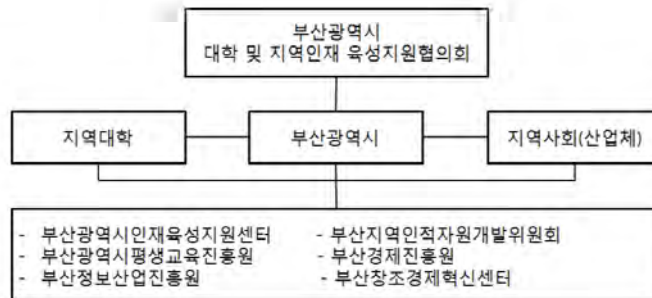
## 02 지역협업위원회 운영 사례분석 (3)

### 지역협업위원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시사점

- 지자체 전략분야와의 연계 -> 메타거버넌스
  - ✓ 기초지자체의 동의 가능한 전략 분야 집중
  - ✓ 초광역권/연합 지자체의 전략 분야 선정 시 지자체 주도적 역할 필요
  - ✓ 기존 거버넌스 활용 및 네트워크 존재는 플랫폼 사업의 성공 요건에 큰 영향
  - ✓ 핵심분야 산업계 거버넌스 구축 또는 부처 협업
- 지자체(단체장) 리더십의 확보 -> 지자체 소속 위원 ↓
  - ✓ 대부분 단체장이 위원장이나 실제 참석하지 않고 대참
  - ✓ '부'시장 또는 실무국장급 위원으로 정책 의사결정 및 집행에 실질 반영 필요
- 총괄센터의 협력역량이 곧 플랫폼 역량 -> 상시 협업 체제
  - ✓ 총괄센터 조직의 구성 방식, 공간, 처우 등이 관련 높음
  - ✓ 총괄센터 협업을 위한 담당 지자체 최소 '과' 또는 '국'단위 지정 바람직
- 과학적 수요조사 기반 인력양성 프로그램 -> 실태 조사
  - ✓ 대학 주도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 지자체 인력양성과 미스매치
  - ✓ 근거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수요/취업 실태 검토

## 02 부산광역시 대학협력단 운영사례 (1)

- 분석대상 : 부산광역시 대학협력단 운영 사례(2016~)
  - ✓ 2015년에 '제1차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추진
  - ✓ 2021년 다시 '제2차(2021~2025)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 분석방법 : 추진체계와 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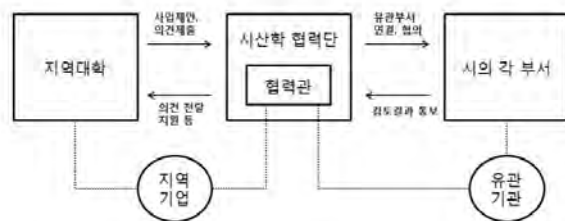
21

## 02 부산광역시 대학협력단 운영사례 (2)

〈부산광역시 시·산·학 협력단 조직〉



〈시·산·학 협력단 업무협력 체계도〉



22

## 02 부산광역시 대학협력단 운영사례 (3)

### 부산시 대학협력단 운영사례의 성과 및 시사점

- 부산시와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육성 협력 성과
  - ✓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함.
  - ✓ 지역인재 육성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
  - ✓ 부산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수업지원 프로젝트
  - ✓ BB21 Plus
  -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 부산지역 대학 및 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운영
  - ✓ 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
  - ✓ 시대학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 지역사회 활동단 'SAM'
  - ✓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협력지원
  - ✓ 지역대학플랫폼 구축운영
  - ✓ 대학생학술대회(아이디어경진대회)
- 협력관계 및 시사점
  - 1)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부서의 명칭이나 역할이 조정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음.
  - 2) 대학과 함께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학의 중복투자에 대한 강제조정 능력, 협업 및 조정 거버넌스의 설치 등에서 한계
  - 3) 시와 협력하는 기관을 출범 하였으나 이 기관을 성장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행 재정적 지원의 미흡
  - 4) 지역 내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재육성 정책수립이 불가능하여 대학의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어렵다는 점

23

## 02 분석결과의 시사점

- 지역 산업과의 연계(특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학생인구의 이동에서 산업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의 구성이 지역 산업 기반으로 구축됨.
  - 전문대학의 특성화는 취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
- 4년제 대학의 성격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함.
  - 연구중심의 대학과 취업중심의 대학의 혼재하여 이를 재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과 취업 중심 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의 차별화 필요함.
- 구조개혁을 위한 리더십의 구축이 필요함.
  - 중복투자, 구조개혁을 위해 개별 대학의 자율성보다 상위의 구조에서 통폐합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함.
  - 리더십의 형태(통제적/협력적)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
- 지속적 개혁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제의 구축 필요
  - 지방선거 등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추진체계가 필요함.
  - 법안화(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나 공적 조직의 신설 등에 대한 논의 필요함.

24



# 3 정책 방안

## 03 고등교육의 재구조화(1)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구조를 직업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

- 고등교육 보편화와 직업교육화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구분이 모호해 졌으며, 특히 4년제 대학은 연구중심의 대학과 직업중심의 대학이 혼재한 상황임.
  - 직업중심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통합
  - 연구중심 대학은 별도로 관리
- 직업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의 차별화
  - 직업중심 대학은 자체적으로 수입구조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준공영화를 통한 직접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 연구중심 대학은 간접비 지원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시장경쟁을 통한 대학 재정 지원.
- 직업중심 대학은 인력수급을 바탕으로 직접적 구조개혁을 추진함.
  - 지역 산업 중심의 인력 양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추진
  - 초광역단위의 산업 중심의 지배 구조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직접 지원 및 직접 구조개혁 추진
- 연구중심 대학은 R&D 사업을 통한 간접비 지원 규모의 상향을 통해 지원하여 경쟁 유도
  -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학간 경쟁 체제의 구축

### 03 고등교육의 재구조화(2)

#### < 대학의 기능별 구분 방안 >

분류	기존 대학	기능 및 역할	재정지원
교육 중심 대학	전문대학, 학부 중심 대학 등 취업 목적의 대학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교육 기간의 자율 운영	정부 및 지방정부 직접지원(준공영체)
연구 중심 대학	연구중심 대학 및 대학원	학문 및 과학기술 중심의 교육 및 연구	경쟁에 의한 연구비 지원과 간접비 중심 재정지원
대학원 대학	전문 대학원	전문 영역에 대한 교육 재교육 훈련 전달(단기 전문인력 양성)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업 및 정부의 재정 지원(내일배움카드 활용)

#### < 카네기 재단의 대학분류(예) >

구분	특징	비고
박사학위대학(연구중심대학)	20명 이상의 박사 또는 2개 과정에서 30명 이상의 전문박사 배출 대학 중에서 연구비 지출이 500만불 이상인 대학	R1, R2, D/PU로 등급화
석사학위대학	최소 석사 50명 이상, 박사 20명 이하의 배출 대학	M1, M2, M3로 등급화
학사학위대학	학부 단위의 최소 50% 이상이 학사학위, 석사 50명 미만, 박사 20명 미만의 수여 대학 포함	
학사/전문대학	전문학사 학위 50% 이상을 수여하는 4년제 대학(학사학위 최소 1개 포함)	
전문대학	최고 수준의 학위가 전문학사인 대학	

27

### 03 지방대학 거버넌스 재구조화(1)

지방대학 거버넌스의 재구조화는 지역산업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 추진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 지역 대학의 구조개혁의 추진 가능성이 전제됨.

- 지역산업 기반의 인력양성 체제의 구축
  -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양성 체계를 초광역 단위로 구축함.
  - 지역의 대학은 인력 양성 체계 내에서 특성화 추진
  - 지역 내 상시적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지역산업교육센터)
- 안정적인 추진 체계의 구축과 지속성의 확보
  - 지역혁신 플랫폼의 재단법인 또는 지역대학청 수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자체적 독립성과 국가 수준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적으로 구축
- 지역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강한 리더십의 확보
  - 지역 대학의 구조 개혁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대학 자율적 개혁에는 한계가 있음.
  - 강한 리더십의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통제적 거버넌스의 구조를 모두 갖출 필요가 있음.

28

### 03 지방대학 거버넌스 재구조화(2)

방안	설립(안)	장점	단점
지역 대학청	초광역단위를 기초로 하여 지방정부 조직으로 지역 대학청 신설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로 구조개혁 등 추진이 용이함.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학과 구조개혁을 추진 가능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논란 -별도 행정조직의 수립으로 인한 비용 증가
혁신플랫폼 재단법인	초광역단위를 기초로 지역별 재단 법인의 설립 및 법제화	-대학의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보장함. -참여자(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존하여 자발성이 높음.	-의사결정의 합의 도출이 어려움.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이 쉽지 않음.
지방정부 지원체제	광역정부에 지방대학에 대한 규제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조직 신설	-현재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이 높음. -지역 차원의 구체화된 요구의 수용과 반영이 용이함. -의사결정 구조가 비교적 단순함.	-지방정부 권력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음. -초광역 산업권과의 연계가 어려움.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이 어려움.

### 03 지방대학 거버넌스 재구조화(3)

연구중심 대학은 지방정부가 중점지원 육성을 통해 우수 대학 육성  
직업중심 대학은 초광역 단위의 준공영화 추진을 통한 구조개혁

- 연구중심 대학은 지방정부 단위로 중점 육성 전략을 추진
  - 지역 산업과 연계된 R&D 지원 등을 통해 중점 육성
  - 지역의 브랜드화 전략의 추진
- 직업중심 대학은 준공영화를 통한 직접적 관리 체제 구축
  - 지역의 인력수급을 기반으로 학과의 구조개혁과 통폐합 추진
  - 준공영제를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체제 수립(사립고등학교 운영 사례 참조)
  - 초광역 단위의 운영으로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 연구중심 대학과 직업중심 대학의 선정 방안 마련
  -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참여 기준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 자율적 선택에 의함.
  - 직업중심 대학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함으로써 유인체제 마련

# 4 시사점

## 04 시사점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구조개혁 필요

- 지역 산업과 연계된 경우 지역 이동이 낮고,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방대학 구조 개혁의 방향을 지역의 핵심산업을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산업과 연계를 고려할 경우, 기존의 지방행정 조직을 넘어서는 초광역 수준의 산업 분석, 인력 수요 분석 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함.
- 연구중심 대학과 직업중심 대학에 대한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차별적 분석이 필요함.

### 지역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리더십 확보 전략의 필요!

- 지역 고등교육 거버넌스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의 확보가 필요함.
- 협력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의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 협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개별 지방 정부가 지역의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특화된 대학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00 참고문헌

이 자료는 “유한구 김승보 주희정 채창균 이은혜 이영일(2022).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연구의 중간 결과이며, 최종 보고서는 2022년 6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발표 3

##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전략

송창용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전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송창용

## 목차

- I. 서론
- II.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진단들
- III. 지역 사례 분석: 대경권
  - 지역노동시장권
  - 지역소멸위험지수
  - 지역 훈련자급률
  - 대학 입학생수
  - 지역 산업과 직업 비중
- IV. 지역 인력양성 전략과 방향
- V. 지역 청년일자리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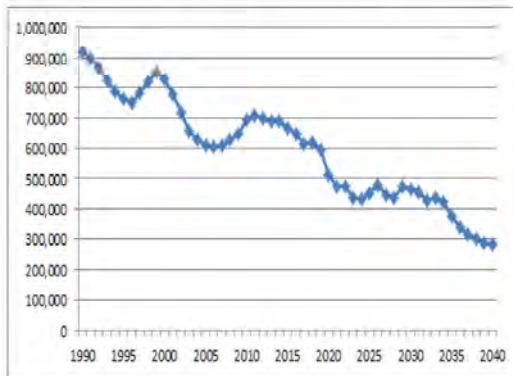
## 1. 서론

### 1.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 대학 입학 연령대인 만 18세 인구는 20년 기간 30만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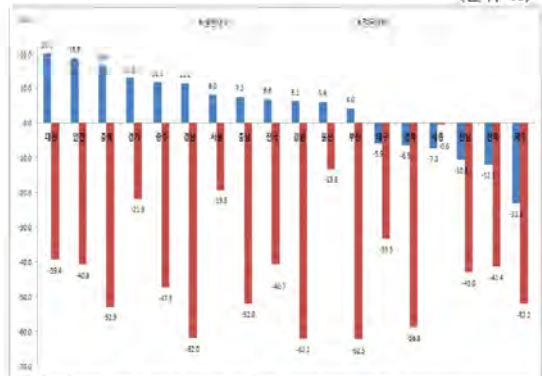
\* 만 18세 인구: 2000년 82만 6천 명, 2010년 69만 4천 명, 2020년 51만 1천 명, 2030년 46만 명(동계형).

[그림 1] 만 18세 연령의 인구 변화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2] 지역별 입학생 수 증감률(2000년 대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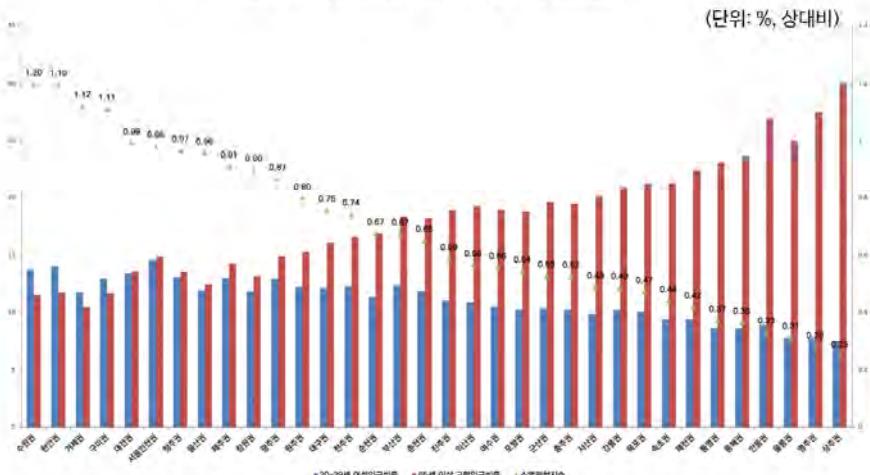


주: 증감률=(2020년 입학생 수-2000년 입학생 수)/2000년 입학생 수×100.  
단, 세종의 경우 2015년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 2. 지역의 위기

### 가. 지역노동시장권별 소멸위험지수

[그림 3] 지역 노동시장권별 지역소멸지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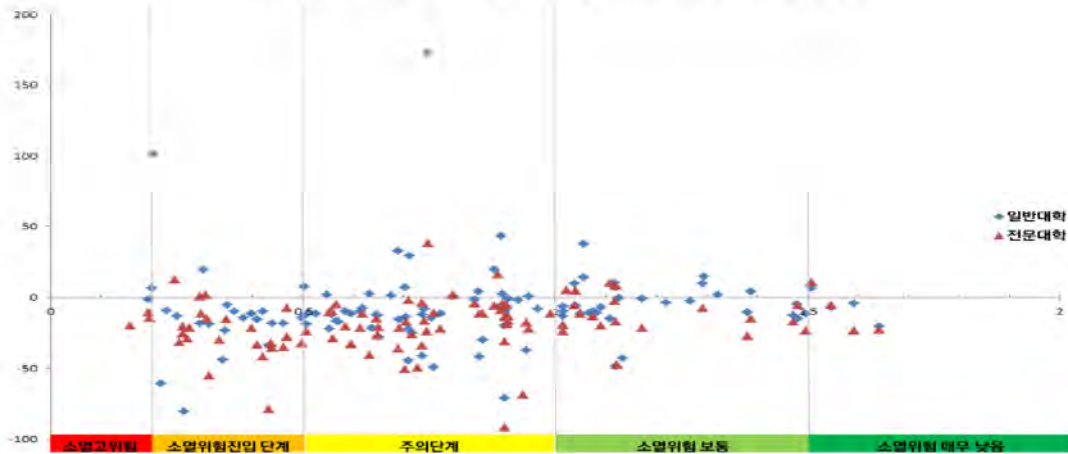


주: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령(年令)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주민등록 연령인구를 활용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B\(검색일: 2021.06.1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B(검색일: 2021.06.10.))

2. 지역의 위기

나. 지역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자원 증감률

[그림 4] 지역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자원 증감률(%) 분포



주: 1. 증감률=(2020년 입학생 수-2010년 입학생 수)/2010년 입학생 수\*100.  
 2. 서울 중랑구에 속한 일반대학의 증감률은 558.5%, 소멸위험지수는 0.9임.

3.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지역의 인력양성 전략 마련 필요

- 대학 입학생 수 감소는 대학의 생존위기
- 대학의 생존 위기와 지역 소멸위험과 맞물리면서 지역산업 및 지역고용 위기를 불러오고 있음
-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며, 국가 사회경제 발전에 잠재적 위험이 되고 있음.

문제해결의 열쇠는

“지역인재의 정주를 위한 청년 일자리 활성화”

## II.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진단틀

### □ 필요성과 목적

- 지역의 현황진단
  - 소멸 위기, 산업과 일자리 유형, 지역에서 재직자 훈련, 지역 대학의 입학자원
- 지역의 인력양성 전략과 방향 모색

### □ 분석지표

- 지역노동시장권
- 지역소멸위험지수
- 지역 훈련자금률
- 대학 입학생수
- 지역 산업과 직업 비중

### □ 지역 노동시장권

- 지역 수준에서의 교육·훈련 정책은 '일'과 '학습'의 공간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제
- 지역 노동시장권은 크게 노동수요 자금률과 노동공급 자금률을 활용하여 설정
  - 노동수요 자금률(근무지 기준 자금률)  
: 한 지역이 어느 범위까지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가를 나타냄.
  - 노동공급 자금률(거주지 기준 자금률)  
: 한 지역이 어느 범위까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가를 나타냄.
-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자금률이 75% 이상인 경우, 하나의 지역 노동시장으로 간주

### ○ 분석자료

- 노동수급자금률: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자료
- 전국 단위 통근 행렬을 사용한 지역 노동시장권 34개 산출
  - 자금률 65~75% 구간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 표본자료

〈표 1〉 지역 노동시장권(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수도권	서울인천권	서울, 인천
	수원권	인천 옹진군,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강원권	원주권	원주시, 횡성군
	춘천권	가평군,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릉권	강릉시, 평창군
	동해권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경성군, 울진군
	속초권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권	대전권	대전시, 세종시, 옥천군, 영동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천안권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계천권	영월군, 계천시, 단양군
	충주권	충주시
	청주권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서산권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표 2〉 지역 노동시장권(대경권, 동남권)

대경권	대구권	대구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포항권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안동권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구미권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영주권	영주시, 봉화군
	상주권	상주시, 문경시
	울릉권	울릉군
동남권	부산권	부산시, 양산시
	울산권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산 울주군
	진주권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통영권	통영시, 고성군
	거제권	거제시
	창원권	김해시, 밀양시, 광명시, 의령군, 칠안군, 광남군

〈표 3〉 지역 노동시장권(호남권, 제주권)

호남권	광주권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군산권	서천군, 군산시, 보령시
	전주권	전주, 경음,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익산권	익산시
	목포권	목포시, 강홍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여수권	여수시
	순천권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제주권	제주시, 서귀포시	

주: 저금률 65~75%, 통근자 수 12,875~34,945명 기준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 표본자료

□ 지방소멸 위험지수

○ 지역의 '소멸 위험지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됨.

“소멸 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

○ 지수가 0.5 이하(즉,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지역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표 4〉 소멸 위험지수에 따른 정의

명칭	소멸 위험지수	
소멸 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 위험 보통	1.0 ~ 1.5 미만	
주의 단계	0.5 ~ 1.0 미만	
소멸 위험 지역	소멸 위험 진입 단계	0.2 ~ 0.5 미만
	소멸 고위험 지역	0.2 미만

자료: 이상호(2018).

\* 분석자료 :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양(年央) 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주민등록 인양인구를 활용함.

□ 지역 훈련자금률

- 지역 노동시장권을 설정하여 훈련의 자금률을 살펴봄.
- 근무지 기준 훈련자금률로서 훈련자금률이 높을수록 근무지에서 훈련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냄.
- 분석자료 : HRD-Net 훈련자료
  - ※ 지역별 기업 지원 직업훈련자금률(2018년) 대구·경북 57%, 전남 44%, 충남 48.9%
- 지역 내 직업훈련 참가자 비율
  - ※ 울산(70.4%), 전북(66.8%), 서울(66.6%), 부산(64.5%) 순으로 높고, 전남(44.0%), 충남(48.9%)로 매우 낮음.

□ 대학과 대학 입학생 수 증감

- 입학생 수 증감률은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생 수를 활용하여 계산함.
- 증감률 =  $(2020\text{년 입학생 수} - 2010\text{년 입학생 수}) / 2010\text{년 입학생 수} \times 100$
- 분석자료: 대학알리미 공시데이터, 2010~2020년 신입생 증원 현황

□ 노동시장권별 지역산업 매치

- 노동시장권별 시·군·구 지역 수준에서의 지역산업 매치
- 지역 산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산업, 종사자 수 기준으로 살펴본 지역특화산업 및 뿌리산업<sup>1)</sup>, 그리고 향토산업, 지역특구산업, 창업 중심의 로컬크리에이터를 포함시켰으며, 이들을 각각 노동시장권별로 매치함.
  - 국가산업단지 주요 산업, 지역특화산업 및 뿌리산업은 제조업과 융복합 신산업 중심
  - 향토산업과 지역특구산업은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중심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해 사업화하는 창업 중심의 구성인 것이 특징임.

<sup>1)</sup>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6대 업종으로서 주력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임.

- 분석 산출 내용과 방법: 제조업 강세지역과 농업 강세지역이 구분하고 인구 분포와 지역소멸위기 동시에 분석
  - ⇒ 인구 분포와 지역소멸위기 동시에 분석
  - ⇒ 지역 인재 양성의 방향 설정
  - ⇒ 지역 기반의 일자리 활성화 사업 발굴

◆ 농업강세지역의 특성

- ⇒ 20~30대 인구비중이 낮으며 감소율은 크며, 지역소멸위기는 매우 큼.
- ⇒ 제조업 기반의 지역 인재 양성은 한계를 가지게 됨.
- ⇒ 지역소멸위기가 겹치고 있어서 인재양성목적의 사업은 어려움.
- ⇒ 대학의 교육기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따름.

**청년 일자리를 발굴한다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재생사업을 목적으로 농업+서비스 산업과 연계**

- 이하에서는 노동시장권 기준 **대경권**을 대표사례로서 분석함

### Ⅲ. 지역 사례 분석: 대경권

◆ 대경권 지역 노동시장권

- 대경권이 대구권, 포항권, 안동권, 구미권, 영주권, 상주권, 울릉권 총 7개의 지역 노동시장 권역으로 분류됨.

〈표 5〉 대경권의 지역 노동시장권

대구권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포항권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안동권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구미권	구미시, 철곡군, 김천시
영주권	영주시, 봉화군
상주권	상주시, 문경시
울릉권	울릉군

[그림 5] 대경권의 지역 노동시장권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 표본자료  
 주: 자급률 65~75%, 통근자 수 12,875~34,945명 기준



◆ 대경권 취업자 현황

○ 대경권 전체 취업자 수는 2,694천 명

• 대구권 56.8%, 포항권 15.9%, 안동권 6.7%, 구미권 14.1%, 영주권 2.8%, 상주권 3.5%, 울릉권 0.2%.

○ 대경권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 :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가 가장 높고, 건설업이 가장 낮음.

○ 대경권의 직업별 취업자 비율 :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가 가장 높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낮음.

(표 6) 대경권 산업별 취업자 현황

행정구역별(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비율
대경권		2,694	100.0
대구권 (56.8)	대구광역시	1,204	44.7
	영천시	73	2.7
	경산시	142	5.3
	군위군	17	0.6
	경도군	31	1.2
	고령군	27	1.0
	성주군	35	1.3
포항권 (15.9)	포항시	248	9.2
	경주시	157	5.8
	영덕군	22	0.8

(표 6) 대경권 산업별 취업자 현황(표 계속)

행정구역별(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비율
안동권 (6.7)	만동시	84	3.1
	의성군	36	1.3
	경송군	18	0.7
	영양군	10	0.4
	예천군	33	1.2
구미권 (14.1)	구미시	244	9.1
	칠곡군	62	2.3
	김천시	75	2.8
영주권 (2.8)	영주시	54	2.0
	봉화군	21	0.8
상주권 (3.5)	상주시	57	2.1
	문경시	38	1.4
울릉권 (0.2)	울릉군	6	0.2

주: 대구광역시 외 취업자 수는 거주자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 지역별 고용조사 (2020 2/2)

〈표 7〉 대경권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현황

구분	산업별 취업자 비율							직업별 취업자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대경권	12.5	20.4	6.8	17.6	8.3	34.4	17.9	14.0	20.3	12.4	23.6	12.6
대구권	7.4	19.8	7.5	19.7	8.9	36.6	19.7	15.2	21.9	7.4	23.1	12.8
포항권	12.0	21.2	6.0	16.1	8.4	36.3	17.2	13.4	20.5	11.7	25.7	11.5
안동권	38.2	5.0	6.4	13.8	5.5	31.1	12.6	9.8	16.7	36.9	11.5	12.5
구미권	11.6	34.2	5.3	14.9	7.8	26.2	15.9	13.7	15.4	11.4	31.8	11.9
영주권	30.3	9.6	7.4	14.1	7.6	30.9	11.0	9.7	18.6	28.6	17.8	14.3
상주권	36.7	9.4	5.3	12.5	5.1	30.9	11.0	8.3	16.7	35.6	15.1	13.4
울릉권	15.5	1.7	6.9	22.4	10.3	43.1	79.3	53.4	108.6	81.0	62.1	70.7

자료: 통계청 KOSIS, 지역별 고용조사(2020 2/7)

◆ 지방소멸 위험지수

○ 대경권

- 인구 : 약 500만 명
- 20~39세 인구 : 약 1백 19만 6천 명. 20~39세 인구의 비율 : 23.9%.
- 10년간 20~39세 인구의 증감률 : -17.9%. 소멸 위험지수 : 0.6.

○ 20~39세 인구 비율을 보면,

구미권 27.2%, 대구권 25.1%. 반면, 상주권 16.8%, 안동권 17.8%, 영주권 16.8%.

○ 소멸지수 역시 비슷한 양상.

구미권 0.9, 대구권 0.7, 상주권 0.2, 안동권 0.3, 영주권 0.3.

(표 8) 대경권 인구 현황 (2020년) 및 지역소멸도

(단위: 명, %, 상대 비)

지역	인구수(A)	20~39세 인구수(B)	20~39세 인구 비율 (B/A×100)	20~39세 인구증감률 (2020~2010)	소멸 위험지수
대경권	4,997,263	1,195,901	23.9	-17.9	0.6
경상북도	2,635,767	585,204	22.2	-19.6	0.5
대구광역시	2,410,206	619,600	25.7	-16.4	0.8
구미권	671,081	182,358	27.2	-15.5	0.9
경북 구미시	416,001	124,028	29.8	-12.0	1.5
경북 김천시	140,112	30,287	21.6	-11.8	0.4
경북 칠곡군	114,969	28,044	24.4	-30.6	0.7
대구권	2,914,172	730,050	25.1	-16.1	0.7
경북 경산시	261,751	69,596	26.6	-5.6	0.7
경북 고령군	31,647	5,046	15.9	-36.4	0.2
경북 군위군	23,385	3,009	12.9	-31.9	0.1
경북 성주군	43,400	7,030	16.2	-27.2	0.2
경북 영천시	101,506	19,950	19.7	-20.0	0.3
경북 청도군	42,279	5,821	13.8	-35.1	0.2
대구 남구	145,124	37,443	25.8	-29.9	0.6
대구 달서구	560,962	147,637	26.3	-19.2	0.9
대구 달성군	257,019	71,489	27.8	33.9	1.1
대구 동구	340,729	86,336	25.3	-14.4	0.6
대구 북구	436,380	115,385	26.4	-16.7	0.9
대구 서구	170,923	39,937	23.4	-40.4	0.5
대구 수성구	423,483	98,866	23.3	-18.7	0.7
대구 중구	75,567	22,509	29.8	-3.8	0.7

지역	인구수(A)	20~39세 인구수(B)	20~39세 인구 비율 (B/A×100)	20~39세 인구증감률 (2020~2010)	소멸 위험지수
삼주권	169,507	28,508	16.8	-29.7	0.2
경북 문경시	71,267	12,187	17.1	-30.2	0.3
경북 상주시	98,241	16,321	16.6	-29.3	0.2
안동권	307,042	54,603	17.8	-23.4	0.3
경북 안동시	158,634	32,598	20.5	-23.7	0.4
경북 경안군	16,667	2,241	13.4	-35.2	0.2
경북 예천군	55,042	9,631	17.5	4.4	0.3
경북 의성군	51,647	6,607	12.8	-38.8	0.1
경북 칠곡군	25,052	3,527	14.1	-29.8	0.2
영주권	134,944	22,703	16.8	-31.6	0.3
경북 봉화군	31,492	4,109	13.0	-37.6	0.2
경북 영주시	103,452	18,594	18.0	-30.2	0.3
울릉권	9,185	1,768	19.2	-32.7	0.3
경북 울릉군	9,185	1,768	19.2	-32.7	0.3
포항권	791,334	175,913	22.2	-21.2	0.5
경북 경주시	252,663	53,174	21.0	-24.7	0.4
경북 영덕군	36,484	5,058	13.9	-36.3	0.2
경북 포항시	502,187	117,681	23.4	-18.7	0.6

자료: 통계청 (2020).

◆ 지역 훈련자금률

- 대구의 역대 직업훈련 참가자 비율은 56.2%로, 서울, 경기로 이동한 비율이 26.7%.
- 경북의 직업훈련자금률은 57.4%이고, 인접 대구로 이동한 비율이 5.7%, 서울, 경기로 이동한 직업훈련 참가자 비율이 20.5%.

〈표 9〉 대경권 기업 지원 직업훈련 참가 지역(2018년)

		(단위: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제주		
대구	18.1	8.6	0.5	1.3	1.6	1.1	56.2	9.6	0.5	0.2	0.1	0.3	0.8	0.5	0.5	0.3	0.0		
경북	13.9	6.6	4.3	1.1	3.4	2.3	5.7	57.4	0.5	0.4	2.5	0.4	0.2	0.5	0.7	0.1	0.0		

자료: HRD-Net DB 원자료 저차 가공  
 주: 1) 행은 빌터(근무 지역)를 의미하고, 열은 학습터(훈련 지역)를 의미함.  
 2)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대학과 대학 입학생 수 증감

- 대경권 대학 현황
- 〈표 10〉 대경권 대학 현황

대학	일반대학	전문대	기능대학(폴리텍)
대구권	대구사이버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대구고려대학교 대신대학교 경일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대구공업대학교 호산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수성대학교 계명유피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상운대학교 대경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대구보전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영진사이버대학교	- 한국폴리텍 V 대학 영남공업기술캠퍼스 - 한국폴리텍 V 대학 대구캠퍼스
포항권	경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휘덕대학교 한동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본교	안린대학교 세라믹대학교 포항대학교	
안동권	안동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구미권	김천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윤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구미대학교	- 한국폴리텍 V 대학 구미캠퍼스
영주권	중앙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 한국폴리텍 V 대학 영주캠퍼스
성주권		문경대학교	

□ 대경권 대학 입학자원 증감률

○ 10년간 입학자원 증감률은 대경권 -13.6%임, 일반대학 -9.9%, 전문대학 -17.2%.

○ 포항권에서 일반대학 -26.5%, 전문대학 -50.1% 심각하게 감소.

〈표 11〉 대경권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증감률(2020-2010)

(단위: %)

지역	입학자원 증감률(전체)	일반대학 입학자원 증감률	전문대학 입학자원 증감률	기능대학 입학자원 증감률
대경권	-13.6	-9.8	-17.2	-37.0
강원북도	-16.3	-13.7	-20.8	-27.0
대구광역시	-9.4	2.1	-14.1	-42.2
구미권	-16.4	-22.4	-8.5	-28.0
경북 구미시	-11.6	-14.8	-5.5	-28.0
경북 김천시	-33.7	-34.4	-32.3	
경북 칠곡군	-16.2	-44.6	-1.8	
대구권	-9.3	-4.3	-14.1	-42.2
경북 영천시	2.0		2.0	
경북 경산시	-9.6	-7.9	-16.5	
대구 서구	-40.6			-40.6
대구 달서구	-19.6	-10.2	-31.1	
대구 달성군	37.5	37.5		
대구 남구	-12.1	-21.9	-10.3	
대구 북구	1.3	19.6	-6.1	
대구 동구	-46.2			-46.2
대구 수성구	-23.8		-23.8	

〈표 11〉 대경권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증감률(2020-2010) (표 계속)

(단위: %)

지역	입학자원 증감률(전체)	일반대학 입학자원 증감률	전문대학 입학자원 증감률	기능대학 입학자원 증감률
삼주권	-25.2		-25.2	
경북 문경시	-25.2		-25.2	
인동권	-17.7	-11.4	-21.7	
경북 인동시	-17.2	-11.4	-21.7	
영북 예천군	-21.7		-21.7	
영주권	-8.9	-17.9	0.8	-15.2
경북 영주시	-8.9	-17.9	0.8	-15.2
포항권	-36.0	-26.5	-50.1	
경북 포항시	-28.0	2.4	-40.4	
경북 강주시	-41.7	-33.9	-78.3	

주: 전체 및 전문대학 입학자원 증감률에서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같은 기능대학은 제외함.

〈표 11〉 대경권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증감률(표 계속)

(단위: %)

지역	대학명	구분	입학자원 증감률 (2020-2010)	
대구권				
경북	경산시	경인대학교	-4.7	
경북	경산시	대경대학교	-14.3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12.7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8.6	
경북	경산시	대구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대학)	4.4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교	-8.2
경북	경산시	대신대학교	대학교	5.5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대학교	-8.4
경북	경산시	영남신학대학교	대학교	-13.2
경북	경산시	영남외국어대학	전문대학	-72.2
경북	경산시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전문)	91.5
경북	경산시	호산대학교	전문대학	-35.3
경북	영천시	성문대학교	전문대학	2.0

〈표 11〉 대경권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증감률(표 계속)

(단위: %)

지역	대학명	구분	입학자원 증감률 (2020-2010)	
대구권				
대구	남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	-21.9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10.3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대학교	-10.2
대구	달서구	계명분화대학교	전문대학	-25.3
대구	달서구	대구공립대학교	전문대학	-43.0
대구	달성군	대구장북과학기술원	대학교	37.5
대구	동구	한국폴리텍 VI 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기능대학	-46.2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학교	19.6
대구	북구	대구과학대학교	전문대학	-18.2
대구	북구	대구보건대학교	전문대학	-12.8
대구	북구	영진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전문)	61.7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전문대학	-12.9
대구	서구	한국폴리텍 VI 대학 대구캠퍼스	기능대학	-40.6
대구	수성구	수성대학교	전문대학	-23.8
포항권				
경북	경주시	경주대학교	대학교	-86.8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경주) 분교	대학교	-8.5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학교	전문대학	-78.3
경북	경주시	위덕대학교	대학교	-10.7
경북	포항시	선린대학교	전문대학	-34.0
경북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	대학교	7.5
경북	포항시	포항대학교	전문대학	-46.4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대학교	0.5

(표 11) 대경권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증감률(표 계속)

			(단위: %)	
지역	대학명	구분	입학자원 증감률 (2020-2010)	
<b>안동권</b>				
경북	안동시	가톨릭상지대학교	전문대학	-27.9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대학교	전문대학	-16.1
경북	안동시	안동대학교	대학교	-11.4
경북	예천군	경북도림대학교	전문대학	-21.7
<b>구미권</b>				
경북	구미시	경문대학교	대학교	-19.1
경북	구미시	구미대학교	전문대학	-5.5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	대학교	-10.3
경북	구미시	한국폴리텍 V 대학 구미캠퍼스	기능대학	-28.0
경북	칠곡군	경북과학대학교	전문대학	-1.8
경북	칠곡군	대구예술대학교	대학교	-44.6
경북	김천시	경북보건대학교	전문대학	-32.3
경북	김천시	김천대학교	대학교	-34.4
<b>영주권</b>				
경북	영주시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0.8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대학교	-17.9
경북	영주시	한국폴리텍 VI 대학 영주캠퍼스	기능대학	-15.2
<b>상주권</b>				
경북	문경시	문경대학교	전문대학	-25.2

주: 증감률=(2020년 입학생 수-2010년 입학생 수)/2010년 입학생 수×100

◆ 지역 산업매치

- 앞 절에서 제시된 각 권역별 노동시장권을 지역산업과 매치함.
- 대경권의 경우 6개 노동시장권으로 분류 가능하며, 각 노동시장권별 지역산업은 다음 표와 같이 매치됨을 알 수 있음.

(표 12) 노동시장권별 지역산업(대경권)

권역	노동 시장권	시군구	지역산업		
			산단 주요 산업·뿌리산업 (산업통상자원부)	강도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수산업· 로컬크리에이터 (중소벤처기업부)
대경권	대구권	대구광역시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제조업, 섬유, 화학·신소재, 환경·지속가능,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표면처리, 금형		만경(제), 한양, 메션우빌러, 고대역사문화 체험, 스마트주방농장, 피앤, 신소재 목장방석, 피선유동물켓콤, 단탈, 3D프린터 개발, 육아열병 세라
		영천시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포도 율령산업, 전통음에 산림화, 한양자원 업용화	한양
		경산시	섬유, 환경·지속가능	맛나메대주 퓨전식용개발	중요산업
		군위군	섬유		차두방
		경도군	섬유, 전기전자	한제미나리 산업화, 경도강물면역 계통개발	빈시나리, 우리정신건강보호교육
		고령군	석유화학, 섬유, 화학·신소재, 주조		대기아늑촌체험
	성주군	자동차, 기계, 광업, 석유화학, 섬유, 화학·신소재, 환경·지속가능	창외씨 가공제품 개발	창외산업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표 12〉 노동시장권별 지역산업(대경권) (표 계속)

권역	노동시장권	시군구	산단 주요 산업·부리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향토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구산업· 포털크리에이터 (중소벤처기업부)
대경권	포항권	포항시	철강 및 연관업종	축경가시오가피고부가가치	구룡포에기산업
		경주시	에너지(전력), 금속, 조선, 철강, 환경·지속가능	신라혁신산업화사업	유소년스포츠클럽 신라트위 아토토이
		영덕군		황금연어 클러스터 육성	대개, 청경에너지, 유소년축구
	만동권	안동시		견연염색, 한지 명품화, 향토농산물활용과 증가음식 신업화, 안동미 유통합화, 생강	신막(마)마을
		의성군		전년초 클러스터 사업, 영적의상마늘 향업진흥화, 의성산우유농장경쟁력제고	마늘산업, 수직농장(스마트팜)
		경주군		트론막대주 가공산업	사과
		영양군		고추씨 가공식품, 음식 디미발 개발사업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고추산업
	구미권	영천군			공중산업, 증부지, 농촌관광을향후
		김천시	석유화학, 전기전자, 화학·신소재	고부가가치 저두제품 개발	포도산업, 저두산업, 호두약방
		구미시	기계, 전기전자, 비금속, 섬유, 통신키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단제조·자동차, 화학·신소재, 전기·전자(산), 센서 유통		글로벌교육
		칠곡군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섬유, 전기전자, 통신기기, 화학·신소재	열풍, 차조기 고부가가치 신업화	임평산업

〈표 12〉 노동시장권별 지역산업(대경권) (표 계속)

권역	노동시장권	시군구	산단 주요 산업·부리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향토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구산업· 포털크리에이터 (중소벤처기업부)
대경권	영주권	영주시		사과/통기인삼 식품개발, 고구마 클러스터, 영주삼계탕 육성 글로벌, 영주령기촌 향토산업육성	글로벌인재양성, 힐링(꽃지 재조, 농촌체험)
		봉화군		송이 건조등어 브랜드화, 송이버섯 6차산업화	짜민토퍼미
	상주권	상주시		오다·홍 클러스터 사업, 특수미 명품화	꽃감, 고령지포도
		문경시		명품문경새과 공동가공·마케팅지원 조성, 약돌한우	호미자산업, 여백프린팅
	울릉권	울릉군		섬백리향 클러스터 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9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 사업지구 선정 가이드라인」, P.37.  
 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기부리산업진흥센터(2019), 「2019 부리산업백서」, P.342.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현황」, (160개)  
 중소벤처기업부(2020), 「지역경제 이끌어 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과제 선정」, 2020. 6. 5. 보도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9), 「대한민국 산업단지과 신산업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2021),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2021. 6. 기준)  
 주: 1) 산단 주요 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2021), 국가산업단이에 있는 각 지역의 국가산업단 내 전체 업체 수 대비 해당 업종의 비중 기준 상위 3개 내의 업종(「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2021. 6. 기준)」 참고) 과 해당 산업의 지역간 상대 특화도를 측정하는 계수인 일치계수(2016년도) 기준 상위 20개 지역과 주력 산업 및 신성장 산업을 매치하여 기재함(한국산업단지공단(2019), 「대한민국 산업단지과 신 산업지도」, 참고).  
 2) 향토산업은 2007~2018년도까지 지역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지정된 산업을 정리한 것으로, 김형만 외(2017) 부표2에 농림축산식품부(2018)의 2018년도 자료를 붙여 저자가 작성함.  
 3) 전기·전자(산)은 차세대반도체, 고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능동형 조명, 차세대 컴퓨팅 등 융복합 신성장 산업 5개 분야를 포괄



#### IV. 지역 인력양성 전략과 방향

▶ 지역의 산업과 인력, 훈련 등을 기반으로 지역 인력양성 전략과 사업의 유형 구분

- I 유형: 지역 산업인력 양성
- II 유형: 지역 교육훈련 기반 구축
- III 유형: 지역혁신
  - III-1 유형: 지역혁신\_지역경제 활력
  - III-2 유형: 지역혁신\_일·학습·생활 공동체 구축
- IV 유형: 지역산업 기반의 연구개발

##### ◆ I 유형: 지역 산업인력 양성

전략:

- 지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력 양성
- 지역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

방향:

- 지자체, (전문)대학, 지역산업체(기업) 간 연계·협력
- 지역의 뿌리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지자체, 전문대학, 지역 뿌리산업(기업)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대학의 인력양성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

◆ II 유형: 지역 교육훈련 기반 구축

**전략:**

- 지역의 중소기업과 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기반 구축하고 지역의 교육훈련을 담당
- 지역 전문대학이 지역 중소기업의 연수원 역할을 수행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향:**

- 지역에서의 훈련자급률을 높이고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거버넌스에 지자체와 대학이 참여
- 지역의 훈련수요에 대해 훈련기관, 대학(4년제, 폴리텍, 전문대학)과의 역할 구분

◆ III 유형: 지역혁신 사업

▷ III-1 유형: 지역혁신\_지역경제 활력

**전략:**

- 지역산업·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의 주력 제조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 성과 창출이 예견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
- 지역 주력 제조업의 혁신, 새로운 주력 산업 기반 조성등 지역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 수행

**방향:**

- 지역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과 일반 중소기업 간 연계·협력  
- 제조 기반 구축, 디자인·특허·인증 등 사업화, 인력양성 및 판로 개척 등
- 지자체 주도로 대학 등 지역기관과 함께 지역 주력 산업의 특성을 진단하여 종합적으로 처방 및 지원

▷ III-2 유형: 지역혁신\_일·학습·생활 공동체 구축

전략:

- 지역소멸과 대학의 존립 위기에 처한 지역 대상으로 일·학습·생활 공동체 구축
- 대학은 대학의 벽 허물고 지역과 자원 공유하여 지역 바꾸기의 강력한 동인 제공
- 대학교의 재학생은 학습자에서 지역 공동체로 인식 전환
- 지역의 작은 일자리 만들기 주력

방향:

-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한 지역특산품 답례 활성화를 통해 **마을기업 육성·지원**
- 대학이 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작은 일자리 창출**
-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중기부)과 연계
- 신규일자리의 경우, 소득세 감면 등 조세 지원을 고려

◆ IV유형: 지역산업 기반의 연구개발

전략:

-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대학 RD 기능 강화
- 연구개발이 활성화된 지역기업가형 대학으로 기능 전환
- 지역산업(향토산업, 특화산업) 연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신산업 발굴 및 유치

방향:

-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산관학 공동법인 설립
- (전문)대학이 해당 지역 기업의 기술연구소 역할을 수행

▶ 지역별 인력양성 전략과 연계된 유형

(1) 대구권

- 대구시와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포함.
  - 대경권에서 취업자 비중 56.2% 차지. 제조업 비중 20% 수준. 훈련 자급률 63.1%
  - 대구권내 대구시와 경산시를 제외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은 지역소멸 위기에 진입했으나, 대구권과 같은 노동시장권으로 대구권을 단위로 지역 사업을 수행가능
  - 대구권은 산업과 대학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
- ⇒ **대구권 인력양성 전략과 사업유형 I, II, III-1, III-2, IV**

(2) 포항권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강세. 지역소멸지수는 0.5로 위험진입단계 전에 있음.
  - 훈련자급률 60%.
  - 포항권의 대학은 포항공대와 동국대학교(경주) 분교, 한동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매우 입학자원 감소율이 심각함.
- ⇒ **포항권 인력양성 전략과 사업유형 I, II, III-1, III-2, IV**

(3) 구미권

- 제조업 강세. 훈련자급률은 42.1%로 매우 낮음. 대학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위기
- ⇒ **구미권 인력양성 전략과 사업유형 I, II, III-1, III-2, IV**

(4) 안동권, 영주권, 상주권

- 농업 강세. 훈련자급률은 낮지만. 대학에서 담당하기에는 규모의 훈련을 담당하기 어려움.
  - 대학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위기
- ⇒ **안동권, 영주권, 상주권 인력양성 전략과 사업유형 III-2, IV**

▶ 지역별 인력양성 사업

(표 13) 지역별 인력양성 전략과 사업

권역	지역	전략 / 사업 유형				
		I	II	III-1	III-2	IV
대구권	대구시, 영천시, 김천시, 군위군, 경도군, 고령군, 성주군	◎	◎	◎	◎	◎
포항권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	◎	◎	◎	◎
안동권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	×	×	◎	○
구미권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	◎	◎	◎	◎
영주권	영주시, 봉화군	×	×	×	◎	○
상주권	상주시, 문경시	×	×	×	◎	○

### V. 지역 청년일자리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

- ▶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 구성
  - ▶ 지역의 인력양성전략에 해당 사업은 범부처와 지자체 협업 필요
    - I 유형 사업: 교육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 II 유형 사업: 교육부, 고용부(고용부 훈련 사업 적극적으로 참여 필요)
    - III-1 유형 사업: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 III-2 유형 사업: 교육부, 중기부, 행안부, 문광부, 농림부
    - IV 유형 사업: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 ▶ 법적 기반으로 지자체-대학-기업의 공존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 대학은 대학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이 교육의 초점에서 지역사회의 공존과 지역 일꾼양성으로 전환 필요
- ☞ 지역 내 대학,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위기 극복**

**감사합니다**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략 기획본부